

리이다. 로마제국이 시퍼렇게 살아 있는 현장에서 그들에 의해서 불법으로 처형된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는 생명을 걸어야 하는 엄청난 사실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떨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저들이 결코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저들은 이 사실뿐 아니라 예수사건 전체와 그가 누구에게,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되었는지를 말하되 끊임없이 했다. 그러나 교회의 공식발표로서나 설교로 한 것이 아니라 입에서 입으로, 계속 진원지가 알려지지 않는 방법인 유언비어 형식으로 이 사건을 전승했다. 저들은 십자가사건의 목격자이며 빈 무덤의 목격자들로서 증언했다. 그러나 공적인 교회 고백은 이 여인들을 위시한 예수의 민중의 증언을 공적 고백으로 받아들이지 공포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렇게 제도적 교회의 공적 고백인 이른바 케리그마와 민중의 유언비어가 따로 전해지고 있는 것을 합쳐서 문서화한 것이 바로 마르코복음이며, 이로써 우리도 예수의 사건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계속 말할 수 있게 되었다.

#### 4) 오순절의 말 사건

부활절이 그리스도교 탄생의 날이라면 오순절(Pentecost)은 그리스도교회 탄생의 날이다. 그런데 오순절사건은 바로 말의 사건의 날이다. 오순절에 예루살렘에는 온 세계에 퍼진 유다 사람들을 위시하여 이른바 하느님을 경외하는 이방 사람들이 모였다. 그들은 국경과 문화, 이해관계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어의 장벽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데 성령이 말의 사건을 일으킴으로써 순식간에 그러한 장벽이 허물어지고 모두 알 수 있는 말씀 위에 교회가 서는 일대 사건이 일어났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예루살렘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예레미야가 끊임없이 해야 할 말을 함으로써 수난을 계속 당한 장소, 예수가 최후의 말씀을 함으로써 처형된 장소, 스테파노가 순교한 장, 바울로가 최후로 체포된 장인 예루살렘! 그곳은 역대로 어용종교인들의 부패의 온상이다. 무엇보다도 로마와 결탁하여 예수를 처형함으로써 흐른 피가 아직 대지에서 마르지 않고 있을 그런 장소이다. 바로 여기서 오순절 말씀사건이 일어났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성령으로 입을 열어 해야 할 말, 즉 증언한 자들은 종교귀족도 아니요 성서전문가도 아닌 갈릴래아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의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셈인가!(사도 2, 7~8)

갈릴래아! 예루살렘이 멸시하여 이방인의 땅, 즉 오랑캐의 땅이라고 하던 갈릴래아, 선한 사람이 태어날 수 없다는 그 갈릴래아에서 온 사람들, 저들이 바로 종교귀족의 본거지인 예루살렘 거리에서 말의 사건의 주체가 되다니!

당시의 갈릴래아 사람들은 민중의 상징이다. 바로 이 민중이 주체가 되어 역사를 변혁시키기 위해 이루어질 공동체가 세워지는 날이 바로 말씀사건의 날이다. 이것은 기존체제 그리고 가치관이 붕괴한 사건으로서 정치적 차원 이상의 사건이다. 민중이 귀족층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는 사건은 역사의 장을 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상에서 공통된 점은, 예언자의 맥을 이은 말의 현장은 어떤 구별된 종교영역이 아니라 바로 정치, 경제 그리고 인간의 삶의 현장이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그 말들은 곧 정치문제로 비화할 수밖에 없

었다.

## 2. 무엇으로 말하는 것인가

하느님은 예레미야에게 “나의 말을 너의 입에 담아준다”고 했다. 그러면 입술로만, 입술만 놀리면 말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뒤를 이어 하느님은 “나는 오늘 세계 만방을 네게 맡긴다. 뽑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고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고 심기도 하여라”(예레 1, 9~10)고 한다. 즉 말은 행동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은 삶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하이데거가 “말은 존재의 집이다”라고 한 것은 옳다. 그런 의미에서 예레미야서는 예언서 중에서도 특별한 위치를 갖는다. 즉 이 예언서는 다른 예언서와는 달리 예언을 그의 생애와 결부시켜 전승했기 때문이다. 예레미야 자신도 하느님의 말씀줄 자기의 전기, 즉 삶의 과정에 담아서 진술했는데, 그 붓을 넘겨받은 그의 동반자요 친구인 바루크가 예레미야의 생애를 첨부하여 예레미야서를 만듬으로써 예레미야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이 하느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의 삶, 그의 일거일동 속에서 말씀된다는 신념을 입증했다.

다음, 예수의 경우에서도 그렇다. 특히 맨 처음 씌어진 마르코복음은 그 서두에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는데, 그가 이제부터 기록하는 내용 전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선언이다. 그러면서 마르코는 예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의 행태를 추적하여 서술한다. 그가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 가난한 무리, 병자들, 여인들, 즉 민중과 어떻게 살았는지, 마침내 예루살렘으로 돌진해서 처형당하기까지의 삶을 포함시켜 복음이라고 했다. 마르코